

제자훈련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붙잡다!

광영이공영

옛 속담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진리처럼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을까?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더 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



조성민 목사는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13년간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담당한 후 2008년부터 서울 상도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현재 교회갱신협의회 임원과 CAL-NET 서울지역 총무로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목회자가 있다. 바로 상도제일교회 조성민 목사다.

그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영(樂)이행(幸)’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하영이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의 축약이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는 목회자이고, 상도제일교회도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이지만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보다 ‘하영이행’을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영이행’을 하는 성도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지만, 알고 보니 ‘하영이행’을 잡하는 이유가 제자훈련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상도제일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실버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영이행’을 위해서 조 목사와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하영이행’을 꿈꾸며 제자훈련 목회를 건강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상도제일교회를 소개하려 한다.

‘하영이행’을 꿈꾸는 교회

상도제일교회는 기독교 대학으로 잘 알려진 숭실대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교회로 매 주일 장년 700여 명과 주일학교 300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다. 상도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역사가 오래되어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는 지역이라고 한다.

상도제일교회 또한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

는 전통 교회다. 그래서 조 목사가 부임할 당시 상도제일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었다. 조성민 목사는 새로운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 변화를 원했지만, 교회는 그 변화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나 이것은 변화를 원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어디든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있을 것이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영이행’ 하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었다. 그러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를 갑자기 변화시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상도제일교회는 제자훈련을 하다가 중단한 교회였다. 그래서 더욱 쉽지 않았다.

조 목사가 처음 제자훈련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옛날에 해봤는데 왜 다시 해야 하는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반응이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조 목사는 전통 교회에서 제자훈련 하는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토양작업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임 이후 3년 동안 제자훈련 목회를 위한 토양작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상도제일교회는 제자훈련이 중단된 전통 교회가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 모델인 것이다.

‘하영이행’을 꿈꾸는 목사

조 목사는 어린시절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목회자가 되는 꿈을 자연스럽게 품게 됐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목회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자라면서 목회자 보다는 장로가 되어서 담임목사를 잘 보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훈련되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 때문에 힘들어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조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를 결심한 이유는 그가 새로남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상도제일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며 제자훈련을 진행 중이다.

그 후 조 목사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목회자로서 경험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목회자의 소명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조 목사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역한 곳은 대전 새로남교회였다. 그는 새로남교회에서 13년 동안 사역을 했다. 새로남교회는 조 목사에게 부교역자 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교회였다. 조 목사의 첫 사역지는 새로남교회였고, 두 번째 사역지는 바로 지금 담임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도제일교회이기 때문이다.

조 목사는 새로남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담임)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배우게 됐다. 조 목사는 오정호 목사의 훈련생이 되어 평신도들과 똑같이 훈련을 받았다.

놀라운 사실은 한 해만 그렇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제자반 총무로 섬기며, 오정호 목사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했다고 고백한다. 조 목사는 현재 상도제일교회에서 오정호 목사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으며 보고 배운 대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조 목사는 새로남교회에서 몇 해 동안 제자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훈련받은 것이 정말 목회의 큰 자산이 된 것 같으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 줬다. 오정호 목사는 지금도 제자훈련을 직접 하고 있는데, 조 목사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에 새벽 1시까지 제자훈련을 인도하고도 새벽기도회를 매일 인도했다고 한다. 조 목사에 의하면 오정호 목사의 제자훈련은 몸으로 그리고 삶으로

보여 주는 제자훈련이었다. 그래서 조 목사는 오정호 목사에게 배운 대로, 지금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매일 새벽기도회를 직접 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 때문에 조 목사는 CAL세미나에 다녀와서 곧바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것은 조금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인도자로서 제자훈련을 직접 몸으로 받고 제자훈련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능력이 있는지, 새로남교회에서 체험한 부분에 대해 감사해 했다. 조 목사에게 제자훈련은 몸 안에 익숙한 제자훈련이었던 것이다.



“하영이행”을 꿈꾸게 하는 제자훈련

조 목사가 제자훈련 목회를 결심한 이유는 그가 새로남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가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새로남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됐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이다. 조 목사는 상도제일교회도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믿는 가운데 현재 제자훈련을 진행 중이다.

조 목사가 제자훈련을 목회의 본질로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의 담임목사실에 들어서면 알 수 있다. 조 목사는 부임하면서 담임목사실을 자신만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제자훈련을 위한 소그룹 공간으로 바꿨다. 그것은 조 목사가 제자훈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상도제일교회 제자훈련은 현재 3기가 진행 중이다. 1기는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그룹으로 3개 반을 운영했고, 2기에서 4개, 3기에서 2개 제자반을 운영했다.

교재는 옥한흠 목사의 제자훈련 교재와 사역훈련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1년 커리큘럼으로 변형해 진행하고 있는데, 전반기에 제자훈련을 하고 하반기에 사역훈련을 하고 있다.

현재 상도제일교회는 현장 교회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서 제자훈련을 변형해 진행하고 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년 커리큘럼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통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민 목사만의 특별한 제자훈련 노하우가 없느냐?”라는 질문에 “제자훈련의 특별한 노하우는 없다”고 답했다. 즉 훈련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인도자와 훈련생의 깊은 관계 형성이다. 조 목사에게 있어서 제자훈련의 특별한 노하우는 바로 ‘깊은 관계’ 형성을 통한 제자훈련이다. 이것 때문에 조 목사는 훈련생과 식사를 같이 하며 교제하는 것을 제자훈련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담임목사와 성도가 가까워 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인도자와 훈련생이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치면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간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담임목사와 함께 성지순례를 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 형성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조 목사는 관계 형성을 통한 제자훈련을 위해 마음을 여는 깊은 대화와 토론이 있는 제자훈련을 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도 제자훈련 시간 가운데 훈련생들과 공 예배에 대한 깊은 대화와 토론이 있었다고 한다. 조 목사는 그 시간을 통해 공 예배

에 대한 부족한 점들과 개선할 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후 조 목사와 교회는 공 예배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변화와 동시에 훈련생들도 개인 삶의 예배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를 형성했으며, 마음을 연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지를 보여 준 좋은 예다.



다시 시작한 제자훈련의 열매들

제자훈련을 직접 받으며 몸으로 배우고 익힌 조 목사였지만 그에게도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제자훈련을 하다가 중단한 점은 다시 훈련을 재개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또한 제자훈련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도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그들이 포기한 이유는 삶을 오픈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이 목회의 본질임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진행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은 여기저기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 목사가 제자훈련을 통해 얻게 된 가장 귀한 열매는 든든한 평신도 지도자가 교회 안에 세워진 것이다. 그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동역자와 협력자로서 세워진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목사가 처음 부임할 때 소그룹에는 여자 구역장들만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실시한 이후로 남자 구역장들이 점점 더 세워지게 됐다. 또한 제자훈련을 받은 이들이 지역 사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소식을 들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리고 현재 제자훈련을 하다가 중단한 교회로서 ‘옛날에 해봤는데 다시 해도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제자훈련을 시작한 이후, ‘제자훈련을 다시 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점이 조 목사로서는 무엇보다 감사하다.

또한 상도제일교회는 주일학교 교역자들까지 모두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것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장로들이 변화되고, 목회의 동반자로 세워진 열매의 증거다. 제자훈련을 통해 장로들이 조 목사의 목회철학과 목회전략을 이해한 가운데 기꺼이 받아들이고 결정한 일이다. 조 목사는 장로들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목회의 그림과 꿈을 함께 그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하영이행'을 꿈꾸는 제자훈련 수료생

조 목사는 제자훈련 수료생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적 목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맡은 영혼들을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그러나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영적 목자의 사역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다. 교회와 사회 구석 구석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했다. 구역장으로 있지만 동시에 기관이나 부서에서는 한 구성원으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핵심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 수료생들이 단순한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 인물이 되기를 원했다.



제자훈련 목회를 꿈꾸는 자들에게

조 목사는 전통 교회에 부임해서 제자훈련 목회로 교회 토양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한 걸음 나간 목회자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무작정 제자훈련을 시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제자훈련을 급하게 시작하기보다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도제일교회는 3년 동안 예배와 심방을 통해서 제자훈련의 토양을 갖춰갔다.

그리고 제자훈련 할 토양을 갖춘 다음에는 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우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은 짐이 아니라, 덤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훈련생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에 대한 유익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절대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의 토양을 살피고, 교회에 가장 맞는 옷을 고민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의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 교회에 맞는 제자훈련을 고민하고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경암송의 경우, 제자훈련을 할 때는 성경암송을 원래 하지만, 사역훈련의 성경구절은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담은 성경구절로 바꿔 암송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면서 제자훈련을 짐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 제자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이 훈련생의 삶에 짐이 아닌, 유익하고 기쁜 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영이행'을 위한 교회

상도제일교회의 모토는 하영이행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뜻이다. '하영'은 훈련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이웃의 행복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웃의 행복은 무엇인가? 조 목사는 그것이 지역 주민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첫 번째는 주차 공간에 대한 필요였고, 두 번째는 지역의 상점들을 이용해 물건을 사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알게 된 상도제일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먼저 교회 주차장을 오픈했다. 그리고 지역의 상점들을 돕기 위해 주보의 한 면에 지역상점 광고를 무료로 실어 줬다.



지역의 상점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사진도 찍어 주보에 올리기 시작했다. 이 광고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함께 실렸다. 이런 광고들이 모여서 지금의 쿠폰북을 발행하게 됐다고 한다.

이 사역은 매일 진행되는데, 이 사역을 담당하는 부 목사가 따로 있을 정도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상점을 섭외하고 광고하기 위해 담임목사인 조 목사가 직접 지역의 상인들을 찾아가서 대화를 한다는 점이다.

상점을 무료로 홍보해 주니 지역의 상점들이 너무도 좋아한다고 한다.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쿠폰북이 따로 제작되었고, 내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쿠폰북을 제작하고 발행할 계획이다.

조 목사는 지역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지역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목사는 힘들고 피곤해도 직접 지역의 상점을 일일이 찾아다녔고, 찾아간 상점마다 한 시간 이상씩 함께 이야기하고 광고를 내줬다.

이 과정을 통해 조 목사는 지역 주민들과도 가까워졌고, 전도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조 목사는 담임목사이지만 상도제일교회 전도왕이 됐다. 실제로 인터뷰 당일 조 목사와 함께 주변 식당을 갔을 때, 교인도 성도도 아닌 그 식당 주인이 상도제일교회 담임목사님이라며 칭찬하고 정말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 속에서 이미 이 지역의 유지가 되어 있는 조 목사와 상도제일교회를 엿볼 수 있었다.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조 목사와 상도제일교회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자훈련과 전도, 두 마리 토끼

조 목사는 제자훈련 하는 목회자로서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는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임목사이지만 늘 솔선수범해서 전도하고 있다.

지역의 모든 상점을 찾아다니며 관계를 맺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는 직접 상점을 찾아가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전도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금 상도제일교회는 그동안 모인 쿠폰을 가지고 쿠폰북을 만들어 전도하고 있다. 쿠폰북을 활용해 전도하니 성도들도 정말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것 같아, 기분 좋게 그리고 당당하게 전도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요일별 전도팀을 구성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전도대원들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전도복을 입고 나가고 있다. 전도복 뒷면에는 콜 센터 전



조 목사는 지역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반드시 지역의 필요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번호가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서울시 콜센터 120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상도 제일 콜 센터'로 응용해 교회 전화번호를 기록해 뒀다. 그 옷을 입고 지역 청소를 열심히 하며 전도하고 있는 것이다.

주일이면 남자 30명이 아파트 주변에서 청소를 한다. 이것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다. 조 목사는 이 모든 것이 이웃의 행복을 위한 삶이고,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덧붙였다.



상도제일교회는 '하영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붙잡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자연스럽게 이웃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도록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하영이행'을 꿈꾸는 성도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고 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조 목사의 생각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상도제일교회 제자훈련 수료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상도제일교회에서 2기로 제자훈련을 받고, 지금 심방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임경숙 집사를 만나 봤다.

임경숙 집사는 타 교회에서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도제일교회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상도제일교회에서 새가족 교육과 양육과정으로 일대일 양육을 받은 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임 집사는 훈련을 마치고 지금은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으며, 동시에 식당 봉사라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 또한 교회 전도교육과 훈련을 받은 후, 전도팀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임 집사의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했다. 임 집사는 상도제일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 너무도 많이 변화되었다며, 마음속 깊이 감사해 하고 있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분을 참지 못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았는데, 제자훈련을 받고 난 후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운데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고,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

아졌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면서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부부 관계가 많이 회복됐다고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임 집사의 변화였다. 임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한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 마음을 품고 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로 이어졌다. 예전에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자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불쌍하게 보이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넘치게 되었다고 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임 집사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조 목사의 말이 이뤄진 산 증인이었다. 제자훈련은 성경공부나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다.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마음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시간이다.

전도한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임 집사가 변화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쁘게 전도하는 모습은 제자훈련이 무엇

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가 짐이나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된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다.

임경숙 집사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다. 그녀는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녀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고 있었다. 임 집사는 하영이행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동역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 집사는 담임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격이 없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담임목사님을 만난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집사는 자신이 1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것보다 제자훈련을 받은 1년이 자신의 삶에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줬으며, 제자훈련을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꼭 받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준다고 한다. 그리고 심방이 끝나면 심방한 성도가 다니는 회사 직원들에게 아메리카노 커피를 배달시켜 보내주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 심방을 받은 성도가 너무도 행복해한다고 한다. 이렇게 조 목사는 남자들을 돌아보는 심방을 통해 큰 기쁨을 얻고 있다고 했다. 가서 밥을 사주고 간단히 말씀 나누며 기도하는 정도지만, 중요한 것은 담임목사가 직장을 찾아왔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도 큰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상도제일교회는 ‘하영이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붙잡고 있다. 그러나 사실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한 마리 토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자연스럽게 이웃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도록 섬기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제자훈련이다.

제자훈련을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지금도 상도제일교회는 ‘하영이행’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하영이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자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실천하고 있다.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목회의 본질이다. 이 목회의 본질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가야 하는지 조 목사와 상도제일교회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가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제자훈련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훈련을 정말 제대로 하는 교회가 지역 곳곳에 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류환석 목사〉

훈련 목회와 돌보는 목회, 두 마리 토끼

조 목사는 “제자훈련을 한다고 해서 심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 그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심방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직장 심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개 목회자들이 심방을 하는 곳은 가정이다. 그러다 보면 남자 성도들을 만나서 심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조 목사는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심방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 혼자서 직장 심방을 간다고 한다. 가서 심방이 끝나면 회사 앞에서 사진을 찍고, 사진 두 장 뽑아서 하나는 조 목사가 갖고, 다른 하나는 편지와 함께 당사자에게 보내

※ 쿠폰북 샘플을 받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이메일(educho@hanmail.net)로 연락 주시면 발송해 드립니다.